

전북자치도 '라이즈 성공에 힘 모으자'

'지산학연 협력으로 더 특별해지는 전북의 미래' 주제로... 시군-대학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에 앞서 시군과 대학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은 지자체·대학·출연기관 등 RISE 관련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ISE 전환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처한 공동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대전환이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RISE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RISE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지자체·대학·출연기관 담당자의 역량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전담기관인 JB지산학협력단은 지자체·대학·출연기관 등 RISE 관련 업무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ISE 전환을 위한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한다.

강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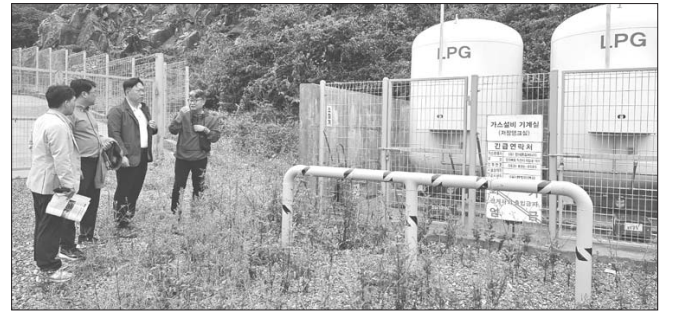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및 성과관리 전략, 핵심 분야별 효율적 집행, 관리 방안, 사업 컨설팅 등 1박 2일 일정으로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워크숍을 통해 시군 등 지역사회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발전 견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전북 라이브센터 JB지산학협력단 조윤정 총괄운영본부장은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RISE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간의 고민과 의견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됐다"며, "각 대학 및 기관, 기업과 활발히 소통하여 우리 지역 RISE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라이즈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군과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나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간 소통과 협력체계가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5일 어청도를 방문해 섬 발전사업과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 어청도 현장 점검

섬 발전 사업·수해복구 현장 살피며...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15일 어청도를 방문해 섬 발전사업과 수해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 사업 △섬마을 LPG시설 구축 사업 등 두 가지 주요사업이 집중 점검됐다.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32억 원을 투입해 0.7km 길이의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섬마을 LPG 시설 구축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되어 어청도 주민 121세대에 안정적인 LPG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된 해안산책로 유지 관리와 LPG 저장탱크 확장 필요성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서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7월 장

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청시 및 도로의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 지역 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월 집중호우로 어청도에서 발생한 피해는 총 27건에 달했으며, 어청시 시설 토사 유실, 도로 유실 및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응급 복구는 완료된 상태이며, 복구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어청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최서단에 위치한 영해 기점 섬으로,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며, "어청도가 더욱 살기 좋은 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시·군, 탄소중립 목표 향한 협력의 장 열다

지역 특성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위해 다양한 의견 교환 등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시군 기본계획 수립 과정 지원 방안 제시

전북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협력이 본격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15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도-시군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각 시군이 도의 탄소중립기본계획과 연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올해 4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내년 4월까지 도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도 및 시군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 한국환경공단(탄소중립ACT센터)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한국환경공단 전영록 과장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설명하며, 탄소중립 ACT 센터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전 과장은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탄소중립 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은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15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도-시군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했다.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장 센터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자체가 전략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시군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탄소중립 위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만호 기자

최후 천연물 의약품 소재 '대마산업'... 최적지는 '전북'

전북연구원, 전북대서 심포지움... '선제 전략 구축 다급'

다양한 의학적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약품 대마를 첨단바이오산업과 연계시켜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치밀한 전략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5일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에서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의약품 대마(헵트)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 심포지움에서 제기됐다.

대학연구진과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약개발연구소 등 각계 석학 20여 명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가진 이날 심포지움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약품 대마 연구 개발 현황과 산업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과, '의약품 대마 신제품 개발과 효능 및 제

형 연구' 발표로 이뤄진 2세션, 종합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 부분에서는 전북연구원 하의현 박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약품 대마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모지와 다름없는 국내 의약품 대마산업을 전북의 특화 바이오산업의 주력으로 견인할 여건이 타월하며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대마산업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국대 약학대학 정세영 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대마 규제개혁을 통해 의약품 대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식 개선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진흥청 박우태 박사는 국가 주도하는 대마연구 현황을 설명했다. 미주 대인식품 안재경 사장은 이미 국책사업화 되고 있는 미국 대마산업 현황을 설명하며 국제정세를 보고했다. /이만호 기자

세션 2에서는 전북대 약학대학 심현주 교수가 대학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바이오 소재개발을 설명하며 의약품 대마산업의 다급함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재철 박사는 식물 세포주를 활용한 의약품 대마 생산기술을 설명했고, 전북대 생명과학과 이정환 교수는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대마 신제품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 등 9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약품 대마산업을 첨단바이오 주력산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발굴과 규제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의약품 대마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전북자치도 헬스케어산업 육성, 특자도 특례를 활용한 대마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도 이뤄졌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겨울철 폭설 대비 '총력'

도-시군-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겨울철 자연재난인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 관련 부서와 전주 기상지청, 전북경찰청, 육군제35보병사단,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 도내 유관기관 6개와 14개 시군이 참

여했다.

먼저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민관군이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다짐했으며, 각 기관은 폭설 시 도로 관리 주체별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해소

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폭설 시 민·관·군이 보유한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설 취약 구간과 산습 결빙 구간을 재조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도로 파손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저감 및 제설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한파워너를 24시간 개방하고, 농축수산물 보호 대책 및 한파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의회 임사회 개최

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5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사업장 방문,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된 가운데 첫날인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이번 임사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18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제2차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2025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정자 의원은 시내버스 공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승선 의원은 농정전략 전문 재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의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에서 "농민들이 일 년 내내 땀 흘려 일군 농작물들이 흉년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농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추수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농관원, 농산물 안전관리 '맞손'

농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도내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 농관원)과 도내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과 김민욱 전북 농관원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과 함께 상시적인 특별사법경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농관원은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을 목표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와 상호 전문교육도 진행 계획이다.

김민욱 전북 농관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 도내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보 공유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전주시 선정기업 현장 간담회 열려

전북자치도의회 경산건위 소속 전주지역 도의원들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주지역 도의원들이 지난 14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전주시 선정기업 현장간담회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형 집담 멘토가 사전에 발굴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이병도(전주 1), 김이재(전주 4), 사난이(전주 9) 의원을 비롯해 도 이차전지 탄소산업과장, 전북테크노파크(TP)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전북형 제조혁신 마트그룹장, 나눔정밀 및 전주시 내 참여기업 대표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제조 현장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과제발굴 및 개선방향 보고, 강령, 그리고 공정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현장투어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업 관계자들과 전북자치도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만호 기자



이병도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북형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더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은 "도내 기업들의 스마트 제조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난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들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와 관련 현장 중심의 행정과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